

부활의 의미, 부활의 증거, 부활의 말씀 -부활절 메시지-

시편 16:10, 고린도전서 15:12-19

정윤돈 목사님

* 시편 16: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 고린도전서 15:12-1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준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부활절 날,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육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불가 능한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험난하고 힘든 세상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이 모든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나를 향한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언약의 레임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실천하여 말씀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

1. 부활의 본질적 의미와 역사적 증거

1) 부활의 참된 이유 사망권세와 사단의 결박 오늘날은 부활절이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세례식과 성찬예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죽어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왜 예수님이 굳이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하셔야만 했는가'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 3장 사건에 있다.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택했을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죽음은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간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문을 잠그셨으며, 마귀의 세력을 영원히 멸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이유이다.

2) 초대교회의 부활신앙과 전도방법 오늘날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라"거나 "축복 받으라"는 전도를 많이 한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300년 동안의 핵심전도메시지는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였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을 믿고 예배에 성공하며 헌신할 때 물질과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직장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로마의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하는 것을 의미했다.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며, 카타콤이라는 어두운 땅굴 속에 숨어 살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 부활"을 외쳤던 이유는 분명했다. "비록 이 땅 로마 제국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왕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왕처럼 누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로마를 정복한 부활의 증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약 25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칼을 들거나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꺼이 순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거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써 세계최강국 로마를 영적으로 완전히 정복한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치, 권세, 물질까지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란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부활의 증인과 선교적 사명

1) 일본 선교현장 보고와 한일 원네스(Oneness)의 비전 지난 주 일본에서 열린 램프트대회와 선교대회에 다녀왔다.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현금을 전달하고 현지 선교사님들의 자녀인 성오와 성권이를 만났다. 중학교 2학년인 성오가 3강 메시지 전 대표기도를 맡았는데 영적으로 매우 성장해 있었다. 선교사님과 대화하며 한 중일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마귀는 이웃나라끼리 끊임없이 전쟁하고 미워하게 만들지만,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다. 한국과 일본이 복음의 한 팀이 될 때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선교사님의 딸이 최근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앞으로 시장과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정치현장을 복음화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현지 선교사님과 대화하며 복음이 정치인, 대통령, 경제지도자 등 서밋(Summit)들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라 포럼했다. 마침 일본 방문 당일, 남동생이 한국 사회복지사 전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국회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일본에도 약 50여 명의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 아버님께서 생전에 일본에 능동하시어 한 일 의원 연맹활동을 지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참사랑교회가 일본 선교사님들과 연대하여 한 일 기독교 정치지도자들이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복음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는다.

2) 히로시마 버스킹캠프와 전도자의 도전 이번 여름방학에는 일본 히로시마로 선교캠프를 떠날 계획이다. 단순히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자기타를 치고 댄스와 찬양을 선보이는 '버스킹전도'를 하려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할 팀을 구성할 것이다. 전도에 생명을 걸고 헌신할 성도들이 있다면 장로님들과 상의하여 비행기 표 등 제반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이 캠프를 진행하고자 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이 따라올 줄 믿는다.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면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이 살아난다. 지력과 영력이 회복되니 학업의 문이 열리고 정신적인 질환이 사라지며 참된 행복과 응답을 누리게 된다.

3) 청소년 시기의 영적 집중과 승리 많은 청소년이 사춘기라는 이유로 갈등하고 우울해하며 방황한다. 그러나 성경 속 인물들은 달랐다. 마리아, 요셉,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은 모두 청소년 시기에 나라를 살리고 골라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정점에 있었다. 그들은 그 시기에 말씀에 집중하고 지력을 얻으며 시대를 장악할 실력을 갖추었다. 나 역시 사춘기 시절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교회봉사에 헌신하였다. 모든 흑암이 꺾이는 줄 믿길 바란다. 사춘기는 영적으로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표이다. 마귀는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갈등하게 만들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복음으로 결론 내지 못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인생을 망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예배에 성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세계복음화를 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주역으로 인도받길 축원한다.

3. 역사가 증명하는 부활복음의 능력

1) 십자가 전쟁의 실패와 종교적 열심의 한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대신, 인간의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시도들은 모두 실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년 동안 지속된 십자가전쟁이다. 십자가전쟁은 8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결국 참패한 실패로 끝났다. 8차 전쟁 때는 왕이 직접 나섰음에도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권력과 무력으로 바꾸어 정복하려 했다. 사단, 마귀와 흑암세력은 돈이나 무력으로 이길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거나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왕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영적 의미, 즉 원죄해결과 사단박살, 영원한 평화를 증거하는 대신 종교를 이용하여 패권싸움을 벌였다. 오늘날 미국의 전쟁이나 강대국들의 갈등도 본질적으로는 이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칼과 무력으로 이루어 하던 십자가전쟁은 복음이 아닌 '종교의 열심'이 낳은 비극이었다. 내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어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사상, 선념, 종교는 결국 죄를 만들고 분열을 일으킨다.

2) 잘못된 지도자와 전쟁의 근본원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대신 자신의 목적과 뜻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미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부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과 목적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다.

3) 로마 역사를 통해 본 부활신앙의 힘 기독교 교회사에서 로마 제국의 분열과 멸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은 약 200년 만에 게르만족에게 멸망했다. 그들은 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과 고난만을 강조했다. 반면 콘스탄티노플(현재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비잔틴) 제국은 1,000년 넘게 융성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승리하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 동로마 제국 역시 훗날 오스만 제국에 함락당했다. 그들이 자랑하던 콘스탄티노플 성벽은 4층 구조로 된 난공불락의 성이었으나 결국 무너졌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군사력, 권력, 견고한 성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오직 왕의 왕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

길 축원한다.

4. 참된 주인을 모시는 삶과 정복의 축복

1) 나 중심의 우상을 박살내는 믿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내가 주인이 되면 우울증, 정신병, 불행이 찾아오고 모든 응답의 문이 닫힌다. 내 고집과 목적, 내 인생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의지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 했던 것이다. "네 생각이 옳다,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마귀의 유혹에 속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것이 곧 우상숭배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혐기와 고집, 지식, 경험, 사업, 심지어 자녀나 재능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과 자녀와 재능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어야 한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2) 모델적인 응답 : 고베(Kobe)의 경제지도자 예화 일본 고베에서 만난 한 장로님의 사례이다. 그분은 고베 시내에만 약 100개의 빌딩을 소유한 어마어마한 자산가이다. 그분은 폴스로이스 3대를 보유할 만큼 부유하지만 삶의 중심은 오직 전도에 있었다. 그분을 만나면 사업이야기보다 먼저 한 시간동안 복음과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전도하기 위해 돈을 벌고 성공해야 한다는 확실한 이유를 가진 분이다. 이 장로님은 매년 11월 11일 11시에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의 기독교 경제인들과 국회의원, 정치지도자들을 모아 모임을 갖는다. 우리도 이러한 응답을 누려야 한다.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성공해야 하는가? 사단, 마귀와 우상숭배에 쫓겨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해방과 에덴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공하고 정복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1. 부활의 과학적·역사적 증거와 영적 능력

1)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부활에 대한 의심과 명백한 증거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응답과 축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이를 의심하곤 한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에는 부활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성경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망 증거이다.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멎고 혈소판이 분리되는데, 이때 맑은 액체(물)와 엉긴 피가 나뉘게 된다. 예수님은 전날부터 채찍에 맞고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한 상태였기에 위장에서 물이 나올 리가 없다. 끈질기게 심장을 관통했을 때 혈소판이 분리되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확실히 사망하셨음을 뜻한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약 6톤 무게의 거대한 돌이 놓여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이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라면, 손발에 못이 박힌 채 그 거대한 돌을 밀어내고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제자들의 변화가 부활의 산 증거이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이후 모두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다.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머무시며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했다. 이는 집단 환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2)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나 정신상태, 가정과 산업이 마치 죽어있는 '사망상태'와 같다고 느껴진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개인의 삶과 직장, 그리고 전쟁 중인 이 세계 현장에 임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기도가 힘들다면 단 1분, 혹은 30초만이라도 집중해 보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기에 짧은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 바람이 부는 것 하나,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다. 선교현장에 가거나 집회를 할 때 중요한 인물을 만나 포말하고 선교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특히 후대들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일본 램프트대회에서 기도했듯이, 우리 후대를 중에서 변호사, 국회의원, 장관, 대기업가 등 각 분야의 탑(Top) 서밋들이 일어나 세계적인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이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의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이 되길 축원한다.

2. 부활체의 소망과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1) 부활체의 신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육신도 아니고 단순한 영도 아닌 '부활체'의 몸으로 계신다. 우리 역시 장차 이 부활체의 축복을 받게 된다. 부활체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늙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 같은 현상이 없는 완벽한 몸이다.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은하계를 여행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소망을 진정으로 믿고 기뻐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는 고백이 실체가 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물질, 건강, 산업, 후대, 교회, 나라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2) 복음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사명 복음의 흐름을 보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크리스티너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이후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교 등을 세우며 신앙중심의 교육을 할 때 미국은 세계최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강대국들이 복음중심이 아닌 전쟁과 패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그 힘을 옮기고 계신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AI와 IT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영적으로 장악할 시간표가 왔다. 이는 국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237나라와 5,000종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이다. 주님은 부활하시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과 왕의 왕되

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은 세계무역과 IT, 바이오 등 모든 분야의 황금열쇠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3) 인권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과거 아프리카나 필리핀, 베트남 현장을 가보았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곳 사람들도 새벽부터 오토바이가 길을 메울 정도로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즉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어야 한다. 이를 믿으시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 이유이다.

3. 성령이 증거하는 부활의 약속과 실제

1) 구약과 신약에 예표된 부활의 말씀 부활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사망을 멸할 것을 약속하셨다. 이사야 25장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는 명확한 선언과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죽음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부활이 단순한 장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실제적인 생명의 능력임을 보여준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에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2) 삶의 목적과 영적 건강의 비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활동이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에 맞춰질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정신병과 우울함에 시달리며 평생 사단에게 끌려 다니는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예배에 성공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답과 영적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3) 부활체의 실제와 심판의 부활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지옥에도 임시 지옥이 있고, 백보좌 심판 이후에 가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 부활은 단순히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몸을 입는 것이다.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체를 입기 전에는 영으로만 행복을 느끼지만, 부활체를 입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 직접 만지고 느끼는 행복이 천만 배나 더 커지게 된다. 마치 TV로 세계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느끼는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실제적 경험이 다. 반대로 지옥에서의 고통도 부활체를 입었을 때 천만 배나 더 잔혹해진다. 과거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간증하신 지옥예화가 매우 리얼하다. 지옥 불에 타서 살과 뼈가 다 녹아내려도 부활체이기에 다시 살이 돌아나고 그 고통을 영원히 반복하게 된다고 표현했다. 이 끔찍한 고통에서 영혼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전도가 시급하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하는 '심판의 부활'의 실상이다.

4) 파수꾼의 사명과 가족 구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도록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도들이 임종을 앞둔 가족을 위해 간절히 목사님께 영접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임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핏 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엄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결론 : 왕 같은 신분을 누리는 부활의 먼저

구약의 직분을 보면 제사장이 먼저 세워져 죄 문제를 다루었고, 그 다음 선지자들이 길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완성하신 왕의 왕이시다. 제사장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끝났다. 선지자의 사역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심으로 완성되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 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자나 공주처럼 왕 같은 신분을 누려야 한다. 만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리며 죄에 눌려 사는 신앙은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부활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술, 담배, 음란 등 작은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수준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당연히 승리하는 신분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제 우리는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왕의 권세를 누리기에 한만 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거나 불행해 할 이유가 없다. 왕의 왕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실 때, 임마누엘의 응답이 찾아온다.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1조원 클럽'에 들어가 전 세계를 다니며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아름다운 언약의 바통을 후대에게 남기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이다. 이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주님과 동시에, 이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부활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세례교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희생의 상징과 의미를 묵상하며, 그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찬예식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성찬이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인생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